

6월 경상수지 흑자 '사상 최대'

한은 발표 '국제수지(잠정)' 121.7억 달러 달성... 저유가 영향 52개월째 불황형 흑자 행진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21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기준 흑자 규모는 499억8000만 달러로, 당초 한은의 전망치(480억 달러)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1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5%, 전월 대비 17.5% 늘어난 121억7000만 달러로 월별 기준 사상 최다치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2012년 3월 이후 52개월째 흑자 기록이자, 사상 최장 기간이기도 하다.

올해 상반기 흑자 규모는 499억8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3번째 규모다.

6월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늘어나고 임금과 투자소득 등 본원소득수지가 배당 수입 증가 등으로 흑자를 낸 것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해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 양상은 지속됐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 줄어든 452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고, 수입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한 338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출과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상품수지의 흑자 규모는 오히려 전달 107억4000만 달러에서 128억2000만 달러로 19.4% 증가했다.

이는 원유가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수출의 경우 선박 등은 증가한 반면 디스플레이 패널, 석유제품, 승용차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LTE KT는 여름성수기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로밍 혜택 제공을 위해 '대한항공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LTE',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5일권',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LTE 5일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등의 수출이 줄어들었다. 6월 품목별 수출(통관기준)에 따르면 정보통신기기가 32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9% 늘었고, 가전제품은 8억3000만 달러로 1.3% 늘었다. 반도체는 53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각각 14.1%, 3.9% 감소한 반면, 소비재 수입이 4.8% 늘었다.

한편 서비스수지는 13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적자 규모가 전달(11억4000만 달러) 보다 확대됐다.

여행과 가공서비스, 운송수지가 모두 악화된 가운데, 건설수지와 지식재산권사용료만 흑자를 냈다. 건설수지는 7억4000만 달러 흑자를 냈지만, 해외건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달(8억4000만 달러) 대비 흑자폭이 축소됐다. 기타사업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는 7억5000만 달러로 전달 7억3000만 달러 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본원소득수지는 12억6000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 투자소득이 13억1000만 달러의 흑자를 냈으나, 급여 및 임금에서 6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금융계정은 96억 달러 순자산 증가를 나타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전달 19억1000만 달러 보다 늘어난 28억2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외국인 국내 투자도 전달 11억9000만 달러보다 늘어난 13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전달 50억7000만 달러보다 감소한 39억8000만 달러 증가를 나타냈고, 외국인 국내 투자는 전달 7억1000만 달러 증가에서 22억2000만 달러 감소로 전환했다.

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5년 이상 장기 계약하는 관행도 손본다. 20개 대부업자에 대한 점검결과 5년 이상 비중(금액기준)은 1년 새 41.4%, 53.3%, 66.1%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일부 대부업자는 계약기간이 다양한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는 달리 원금만기상환방식 등에 대해 계약기간을 5년으로 일괄 적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기간을 1년, 3년, 5년 등으로 구분하고, 대부 상담시 계약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효가 지나서 갚을 필요가 없어진 채권으로 돈을 뜯어내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뉴시스

'쉐보레 8월 써머 페스티벌'

스파크 100만원 할인과 최대 60개월 4.9% 할부

쉐보레(Chevrolet)가 8월 한달 큰 폭의 현금할인과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을, 대규모 전시장 이벤트 등을 마련, 시원한 혜택을 제공한다.

쉐보레에서 제공하는 8월 '쉐보레 콤보 할부 프로그램'은 차량구입 시 최대 350만원의 현금할인과 최대 60개월 4.9% 장기 할부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

콤보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파크를 구매할 경우, 100만원의 할인혜택과 동시에 4.5% 36개월 할부 혹은 4.9% 60개월 할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50만원 현금할인과 프리미엄 다이스 무선 청소기를 제공하는 옵션도 있으며, 할부 프로그램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정부의 노후차 폐차지원 정책에 따라 10년 이상의 경유차량을

보유한 고객이 해당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쉐보레는 추가로 30%의 개별소비세를 지원하며, 이는 향후 정부가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시점에 맞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쉐보레 차량을 3년 이상 보유한 고객이 크루즈를 구입하는 경우, 30만원을 추가로 할인해 주며, 쉐보레 RV 차량의 경우 50만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그밖에, 할부를 이용해 쉐보레 RV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피크닉 웨건을 선물로 증정하는 등 푸짐한 혜택을 준비했다.

쉐보레는 8월까지 전시장을 찾아 응모한 고객 중 추첨으로 해외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보장 늘리고 가격 낮춘 '교보프리미어CI보험' 출시

교보생명원은 보장을 늘리고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를 낮춘 '교보프리미어 CI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사망은 물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중대한 질병(CI)과 중증치매 등 장기간병(LTC)상태를 평생 보장하는 보험이다.

교보생명은 중증세균성수막염, 투계리병, 다발경화증 등 4가지 질환을 새롭게 CI에 추가했다. 또한 그 동안 보장에서 제외됐던 갑상선암 중 예후가 안 좋은 일부암을 갑상선암으로 분류해 보장에 포함했다.

뇌경색처럼 CI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의 질환이나 CI와 연관성이 높은

중증질환 9종도 질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CI발생시 선지급률도 80%(기본형)와 100%(보장강화형)로 확대해 치료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장강화형의 경우 100% 선지급 후 사망시에는 가입금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험료도 낮아졌다. 해지환급금을 공시이율로 적절히 보험료를 10~20% 가량 낮췄다.

이 상품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주계약 기본형 1억 가입시 30세 남자 20년납 기준 월보험료는 23만6000원이다. /뉴시스

'20대에 연대보증' 대부업체 관행 손본다

금감원, 불합리 업무관행 개선... 청년층에 보증위험 고지·소득확인 강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20대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위험에 대한 안내와 소득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4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해 이러한 내용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대형 대부업자 중심으로 26곳이 연대보증 폐지에 참여했지만

일부 대부업자는 20대 청년층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연대보증 대출이 많은 10곳을 점검 결과 청년층 연대보증 대출건수가 전체의 27.1%에 달했다.

앞으로 대부업자는 연대보증부 대출시 보증인이 20대일 경우 연대보증 위험 및 법적 효력에 대해 사전고지하고, 보증의사 전파 확인시 연대보

증 고지내용을 녹취해야 한다.

또 대부중개업자는 중개대출건을 대부업자에게 인계할 때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20대 청년층에 대한 무분별한 연대보증을 예방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 절차도 촘촘해진다.

소득증명은 원칙적으로 근무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증명서와 급여명장 사

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5년 이상 장기 계약하는 관행도 손본다. 20개 대부업자에 대한 점검결과 5년 이상 비중(금액기준)은 1년 새 41.4%, 53.3%, 66.1%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일부 대부업자는 계약기간이 다양한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는 달리 원금만기상환방식 등에 대해 계약기간을 5년으로 일괄 적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기간을 1년, 3년, 5년 등으로 구분하고, 대부 상담시 계약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효가 지나서 갚을 필요가 없어진 채권으로 돈을 뜯어내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뉴시스

"은행원 역할 '금융 컨설턴트'로 바뀔 것"

권선주 기업은행장, "비대면 채널·융복합 협업·해외진출 과제"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은 1일 "앞으로 은행원의 역할은 '금융 컨설턴트'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권 행장은 이날 '창립 55주년 기념식'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 은행원은 고객의 인생과 사업 속에서 보다 가치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거래의 90% 이상을 비대면 채널이 담당하는 현실에서 글로벌 은행들도 저점수 축소와 함께 금융자문으로 영업점 형태를 바꿔 나가기

시작했다"며 "우리도 자산관리 역량을 키우고 상품판매 전 과정을 고객 중심으로 정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행장은 "기업은행은 기업 부문에서 컨설턴트 역할을 할 상당한 실력을 쌓았다"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컨설턴트 역할을 강화하자"고 덧붙였다.

향후 기업은행의 혁신을 이끌 3대 과제로는 ▲비대면 채널 강화 ▲핀테크와의 융·복합 협업 ▲해외 진출 등을 꼽았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